KRX\_상장주식\_투자자별\_거래실적\_20200718225618.csv: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43&tblId=DT_343_2010_S0003> (통계청, 한국거래소)

kospi지수.csv

외국인kospi보유량추이.csv

kospi지수그래프.xls

kospi투자자별 실적그래프.xls

kospi200투자자별 실적그래프.xls

kospi개인순매수상위종목.csv

kospi개인순매수상위종목\_3월.csv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13020307>(한국거래소)

기사 및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p6HfV5o20Tk>

‘동학개미운동! 10조 매수, 개인투자자들의 혁명, 이번엔 다르다.’ 최초로 동학개미운동으로 명명.

<https://www.news1.kr/articles/?3871793>

동학 개미운동이 처음 기사화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12010520620147>

외인과 기관이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1314342831801&outlink=1&ref=%3A%2F%2F>

ETF가 개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주식 상승 이외의 수익에 베팅할 수 있기 때문. 과거 국내 및 해외 시장 하락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나 선물을 이용해야 했지만 공매도, 선물 모두 개인이 참여하기 힘든 시장이다. 반면 ETF는 만원으로도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317504957221&outlink=1&ref=%3A%2F%2F>

2020년 동학개미운동이 새로 쓴 신기록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911220296870>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어떤 주식을 매입했나.

<https://finance.daum.net/domestic/market_cap?view=pc>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변동성이 가장 컸던 3월 개인투자자들은 주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Z0M2H6G>

주식거래 활동 계좌 증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60724i>

동학개미로 불리는 신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입으로 주식 활동 계좌 수가 251만개 증가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5899>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한 3월19일 이후 이달 5일까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코스피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66.5%로 집계됐다. 개인 순매수가 1조원 가까이 몰린 삼성전자는 29.2%의 수익률을 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4342.html>

4월 들어 주가가 급등하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한탕주의 ‘투기 본능’이 급속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대규모 개인들이 코스닥 급등주로 관심을 돌리거나 주가지수·원유 등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몰려들었다. 지수 하락률의 2배 수익을 목표로 해 ‘곱버스’로 불리는 ‘코덱스(KODEX)200선물인버스2×’의 지난달 개인 순매수액은 삼성전자를 넘어섰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1/100753571/1>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뜨거웠던 개인들의 투자 열풍은 3월 들어 증시를 넘어 유가 관련 상품으로 번졌다. 하지만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WTI가 ―37.63달러로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4135815i>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은 지난달 초 유튜브 채널 ‘소소하게크게’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410000304>

신규계좌개설 증가율을 취합, 분석한 결과 모든 증권사들의 신규 고객 유입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5배까지 큰 폭으로 늘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E7U1UB2>

1·4분기에 20~30대를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급증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07MW083922904706>

4월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 6일 8430억 원을 순매도했다. 6일 하루 순매도 금액은 지난해 12월 13일(9892억 원) 이후 4개월 만의 최대 규모로,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2004020593G>

안전자산을 찾는 외국인 투자자, 동학에 빗대 표현되는 개인투자자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32640081>

주식 투자에 나서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고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한 증시가 진정되자 개인 매수세가 더욱 거침없이 유입되고 있다. 주식을 사기 위해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예탁금은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313000193>

코로나 19로 예측할 수 없는 하락장.